

이번호는 1,2학년 통합교과 이웃, 가을 관련 도서와 두 명의 그림책 작가 서평과 함께 고전에 대한 내용을 새로 실었습니다. 고전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지만 좋은 고전을 고르기 어려우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 모임에서 하나하나 읽어가며 모임의 의견을 싣고자 합니다. 고전에 대한 의견은 순전히 우리 모임의 의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북토크 토크! 벌써 10호째 발행되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 하나하나 채워가며 더욱 알찬 내용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과서와 함께 읽어오

- 1,2학년군 통합교과 이웃 관련도서 -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학년-학기-단원명 순)
 <p>아파트 (어린이통합교과연구회 지음/상상의집/2013) *통합교과그림책 시리즈</p>	통합 교과 이웃 1-2 1. 이웃
 <p>우당탕탕 할머니 쿨가 커졌어요. (엘리자베트 슈티메르트 지음/비룡소/2008)</p>	통합 교과 이웃 1-2 1. 이웃
 <p>이웃없는 못살아 (정승오 글/경문주 그림/웅진다독/ ?) *호박들 우리문화 전집</p>	통합 교과 이웃 1-2 1. 이웃
 <p>행복한 주스나우 (요시 마하라비 지음/할리북/2011)</p>	통합 교과 이웃 1-2 1. 이웃
 <p>뭐 어때! 내말이야 (윤희정 글/배슬기 그림/아르놀/2014)</p>	통합 교과 이웃 1-2 1. 이웃
 <p>장터 나들이 (김정희 지음/한림출판사/2007)</p>	통합 교과 이웃 1-2 2. 가게

교과서와 함께 읽어오

- 1,2학년군 통합교과 이웃 관련도서 -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학년-학기-단원명 순)
 <p>똥어항은 어떻게 사먹어요? 시장 구경 재밌다 우리 동네에 온 명이 (김황금 외 지음/웅진다독/) *한걸음 먼저 사회 그림책 전집</p>	통합교과교과 이웃 1-2 2. 가게
 <p>한이네 동네 시장이야기 (강전희 지음/진선아이/2011)</p>	통합교과 이웃 1-2 2. 가게
 <p>또 마트에 간게 실수야 (엘리즈 그러벨 지음/도토북/2013)</p>	통합교과 이웃 1-2 2. 가게
 <p>나의 첫 경제책 1-4 (클레어 래펠린 지음/상상스쿨/2012)</p>	통합교과 이웃 1-2 2. 가게
 <p>이거 얼마예요? (최혜영 글/한수진 그림/밝은미래/2012)</p>	통합교과 이웃 1-2 2. 가게
 <p>나는 무엇이 될까 시리즈 1-5 (유다정 외 지음/다산어린이/2013)</p>	통합교과 이웃 2-2 1. 마을과 사람들
 <p>사회가 재미있는 그림교과서 (박선희 지음/이수영 그림/한솔수북/2013)</p>	통합교과 이웃 2-2 1. 마을과 사람들
 <p>예술령 예술령 동네 관찰기 (이해정 지음/웅진주니어/2012)</p>	통합교과 이웃 2-2 1. 마을과 사람들
 <p>하나뿐인 우리 동네 (마크 하쉬먼/JCR KIDS/2008)</p>	통합교과 이웃 2-2 1. 마을과 사람들
 <p>나의 사적동 (김서정 지음/보림/2003)</p>	통합교과 이웃 2-2 1. 마을과 사람들
 <p>처음 만나는 직업책 (김황금 지음/미세기/2012)</p>	통합교과 이웃 2-2 1. 마을과 사람들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학년-학기-단원명 순)
 달이네 추석맞이 (선자은 지음, 차정인 그림/ 푸른숲주니어 2013)	통합교과 가을 1-2 2.추석
 가을을 만났어요 (이미애 지음, 한수임 그림/보림/ 2002)	통합교과 가을 2-2 1.가을체험
 가을 나뭇잎 (이숙재 지음 배지은 그림/대교/2011)	통합교과 가을 2-2 1.가을체험
 산에 가자 (이상권 지음, 한병호 그림/보림/2003)	통합교과 가을 2-2 1.가을체험
 가을이 좋아 (한이숙 지음, 정순임 그림/대교/2011)	통합교과 가을 2-2 1.가을체험
 무당벌레가 들려주는 뒷밭 이야기:가을에 거두는 열 가지 뒷밭 작물의 한살이와 생태 (노정임 지음, 안경자 그림/ 철수와영희 /2011)	통합교과 가을 2-2 1.가을체험
 자연물 먹어요! 가을 인문학 놀이터 (오진희 글, 백명식 그림/ 내인생의 책/ 2013)	통합교과 가을 1-2 1.가을 날씨와 생활 2.추석 통합교과 가을 2-2 1.가을체험
 가을은 종성해 (박현숙 글, 김미현 그림/키다리/ 2013)	통합교과 가을 1-2 1.가을 날씨와 생활 통합교과 가을 2-2 1.가을체험
 알밤 주우러 가자 (이호철 글, 이재관 그림/ 고인돌/2012)	통합교과 가을 2-2 1.가을체험
 할머니 농사 일기 (이재호 글·그림/소나무/2006)	통합교과 가을 2-2 1.가을체험

주제	학년	단원	교과서 수록 도서	교사용 지도서 수록 참고 도서
이웃	1	1. 이웃	이웃사촌/클로드부종 /물구나무	뫼집 준명아/이해란/보림 이상한 이웃/미래아이/주자네 스텐다/미래아이 내 이웃은 강아지/이사벨 미노스 마르탄스/영어람주니어 이웃에 온 아이/이와사키 치히로/프로메테우스 이상한 이웃/윌리엄 케메데/달리 바둑무늬 하마뿔/토마스 브렌지나/메지현
		2. 가게	요셉의 착고 넓은 오 버코드가...../삼스 대백/베를북	부바네 희망가게/아네스 드 레스트라드/한우리 북스 도토리 마을의 모자가게/나카야 미와/웅진주니어 100원이 적다고?/강민경/창작과비평사 주인 없는 구멍가게/송재찬/창작과비평사 아개 쓰는 아기가 원래요/이규희/두산동아 100원의 여행/양미진/자람 착한 소비가 뭐예요?/정우진/상상의 집 우리 동네 한 바퀴/정지음/웅진주니어
가을	1	1. 마을과 사람들	한이네 동네 이야기/ 강진희/진선아이	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우우사/동쪽나라 고양이가 기다리는 계단/이상희/조방책방 하나뿐인 우리 동네/마크 하쉬먼/JCR KIDS 행복한 정소부/마크 하쉬먼/폴빛 허둥지둥 바쁜 하루가 좋아/리처드 스키테리/보물창고 나의 롤리외르 아자씨/이세 헤데코/영어람 미디어 피장면 더 주세요/이해란/사계절 딩동딩동 편지 왔어요/정소영/사계절 일과 도구/권윤석/길벗어린이
		2. 추석	술이의 추석이야기/ 이억배/길벗어린이	가을 이야기/질 바클렘/마루벌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발레리 거두/아이세움 가을이네 장 담그기/이규희/책 읽는 곰 할머니 어디가요? 밤 주우러 간다/조혜란/보리 연못이야기/조이스 시드먼/웅진주니어 할머니 머릿속에 가을이 오면/디그마 팔러/주니어 김영사 아빠는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남미영/세상모든책 여름이와 가을이/김양미/사계절 가을 운동회/임광희/사계절
가을	2	1. 가을 날씨와 생활	가을을 파는 마법사/ 노루공명이 창작교실 /노루공명이	분홍 토끼의 추석/김미혜/비룡소 모두 모여 한가위/정대린/아이코리아 허수아비의 추석/신수진/두산동아 추석 나들이/스페이스데이북/스페이스데이북 열두달 우리 민속/옛이야기연구회/주니어김영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김병/책읽는 곰 신나는 열두달 명절 이야기/우리누리/주니어중앙 열두달 우리 명절 별별 세계 명절/차대란/해와나무
		2. 추석	투둑 떨어진다/심 조원/호박꽃	바빠요 바빠요/윤구병/보리 사계절 생태놀이/뽀나무/길벗어린이 가을 운동회/임광희/사계절 할머니 어디가요? 밤 주우러 간다/조혜란/보리 가을이야기/질 바클렘/마루벌

* 교사용 지도서 수록 참고 도서는 지도서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영경은 많은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렸다. 그녀가 쓰고 그린 그림책으로는 『아세방 일곱 동무』와 『신기한 그림축자』가 있으며, 특히 그의 대표작 『아세방 일곱 동무』는 2001년 SBS 어린이 미디어 대상 창작 그림책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프랑스어와 일본어로도 출간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신화따라 바다 여행』, 『옛날옛적 이야기쟁이』, 『꽃들이 들려주는 옛이야기』 등에도 그림을 그렸다.



생각은 다 이어져 있어요.

(오래와 오도:마오족의 콩쥐팥쥐 이야기/이영경 글·그림/천동거인(2008)
서울신림초등학교 사서교사 민기연

이영경의 작품 여정을 살펴보면 작가가 특히 우리 옛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실제로 우리 전통의 선을 잘 살려내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한지에 스며든 듯한 부드러운 색감이 원색적이고 화려한 외국 그림과 선명하게 비교되면서 우리의 맛을 살려 주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즉 한국적인 그림책을 만들어내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그녀의 재주가 또 하나의 그림책 『오래와 오도』에서 발휘되었다.

어린 시절 내가 읽던 「콩쥐팥쥐」와 「신데렐라」가 비슷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 바로 「오래와 오도」이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중국 마오족의 이야기로 「콩쥐팥쥐」 이야기와 비슷한 화소로 진행되는 책이다. 이 책은 <요족민간고사선>에 <오래와 샤오나>라는 제목으로 실린 이야기를 작가가 다시 쓴 것이다. 작가는 실제로 구이저우 성의 마오족 마을 두 곳을 여행한 것을 계기로 이 그림책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또한 이 작품에 표현된 자연경관과 마을, 집, 잔치 풍경, 사람들의 옷차림은 작가가 보고 온 마오족 마을을 중심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한다. 옛이야기가 그렇듯이 이 이야기도 각편이 존재한다. 작가는 이야기를 다시 쓸 때 <오래와 샤오나>에 없는 물소를 등장시켜 조금 다르게 구성하였다. 다른 각편에서는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소로 변하고 계모한테 죽임을 당한 뒤에도 계속 여주인공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오래는 새어머니와 동생 오도와 산다. 항상 모든 일은 오래가 하지만 칭찬은커녕 구박만 받는다. 꽃춤이 축제가 벌어지는 날 오래도 참여하고 싶지만 오도에게 오래를 잃는 새어머니..... 오래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밤에 나가 노래를 부른다. 그러다 다친 물소를 발견하고 정성껏 치료를 해준다. 그리고 물소의 도움으로 축제장에 가게 되는데.....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착한 여주인공과 주인공을 도와주는 매개체가 있고, 결국 주인공은 복을 받게 된다. 인간의 생각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비슷하다는 것을 옛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옛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사는 지구촌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신데렐라, 콩쥐 팥쥐와 비교하며 읽어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특별한 이웃=0/남상순/사계절/2010
누리에게 아빠가 생겼어요/소중애/주니어랜덤/2008



1960년, 폴란드의 작은 중세도시인 투루인에서 태어나 코페르니쿠스 대학 미술학부를 졸업한 후,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30권이 넘는 어른과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렸다. 호미엘레프스카의 그림책은, 콜라주와 다양한 채색 기법을 사용하여 아이디어가 넘치며, 철학적인 사색의 깊이를 보여 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에 『아저씨와 고양이』로 프로 불로냐상을, 2003년에 아스노펜스카의 『시화집』으로 바르샤바 국제 책 예술제에서 '책 예술상'을 수상했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요.

(반이나 차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지음/이지현옮김/눈장(2008)
서울청계초등학교 사서교사 박영혜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길가에 한 봉사단체에 커다랗게 쓰여 있던 글이다. 상황에 따른 입장 차이를 나타내는 말.....

“이 책은 시간과 공간, 서로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모든 사물의 상대적인 진실에 대해 말한다.” 는 작가의 말처럼 면지에서부터 입장에 따른 사고의 차이가 보인다. 반으로 갈라진 면지 위쪽에는 새 한 마리가 아래쪽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있다. 똑같은 푸른색 물결이 물고기에게는 바다일 수 있고 새에게는 하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똑같은 산도 어떤 사람에게는 높고 어떤 사람에게는 낮다. 똑같은 소리도 어디서는 시끄럽고 어디서는 조용하다. 같은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이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생각의 시간을 준다. 그녀의 작품은 그렇다. 어찌보면 어렵고 철학적이다.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이 이렇게 어려우면 아이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한국말보다는 영어에서 “어린 시절이야말로 자신의 가능성과 기회를 탐구해야 하는 시기죠. 그래서 더욱 철학적인 그림책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어른들 눈에는 어려워 보여도 아이들은 다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고 이야기한다. 어른의 생각과는 다른 아이들의 눈으로 해석하며 볼 수 있는 생각의 그림책이다.

그녀의 그림책은 독특하다. 신체의 일부인 눈, 발가락이나 그릇, 다름질 자국, 발자국 등 하나의 모양이 다양한 그림으로 변화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기도 한다. 또 그녀의 그림책은 철학적이다. 생각 1,2,3, 생각 1,2,3, 파란막대 파란 상자 등은 어른이 봐도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런 그녀의 책은 한번보고서는 그 맛을 알 수 없다.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맛과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낼 때 그녀의 작품 속으로 빠져들어들 수 있다.

우연히 폴란드에서 한국 그림책 제작자를 만나 한국에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부르며 한국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이쯤에 한국 이름과 비슷한 그녀, 폴란드 작가지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녀의 상상력 넘치고 철학적인 그림책의 세계로 빠져보시기를 바란다.



1. 이 책에 나온 사물이나 현상 외에 같은 상황인데 입장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기
2. 그림을 보며 입장차이의 이유 생각해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이노우에 마사지 글,그림/정미영 옮김/문학동네어린이/2008
내 자전거/에인더 지음/예림당/2007



한국고전 - 사씨남정기

서인 김만중이 살았던 17세기 후반은 남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 등 당쟁이 절정에 달한 시기로, 김만중은 숙종의 첫 부인인 인경왕후의 부친 김만기의 친동생이다. 인경왕후가 죽고 인현왕후가 계비자리에 오르는데, 왕자를 낳지 못하자 숙종에게 후궁을 들일 것을 권하고 임금의 총애를 받던 최빈이 후궁으로 들어온다. 후에 장희빈은 아들을 낳은 뒤 권세를 휘두르며 결국 인현왕후를 몰아내고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인현왕후의 폐출을 반대하다 유배를 가게 된 김만중이 그곳에서 '사씨남정기'를 쓰게 되는데, 전해지는 일화로는 그 뒤 우연히 '사씨남정기'를 읽게 된 숙종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인현왕후를 복위시켰다고 한다.

출판사별 사씨남정기	출판사별 책의 특징
<p>하성란 글 창비 2006</p>	장비의 '재미있다 우리고전' 시리즈 중 16번째 이야기이다. 에필로그에서 밝혔듯이 독자들이 고전의 참모습과 의미를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원전의 뜻과 느낌을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속도감 있는 전개와 두껍지 않은 분량이 독자에게 매력적이다. 그러나 글이 현대적인 어투로 쓰인 점은 조금 아쉽다.
<p>고정욱 지음 영림카디널 2009</p>	고정욱 선생님이 어린이를 위해 다시 쓴 고전이다. 원전에 없는 상황이 너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보는 이의 상상의 날개를 작게 한다. 하지만 2,30년전 가요를 아이들이 리메이킹한 곡을 부르면서 세대에 어우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고전을 읽는 어린이에게 권할 만하다.
<p>이경순 지음 휴이닝 2012</p>	'역사로 통하는 고전 문학 시리즈'로 작품의 배경이 된 사회와 역사를 시작과, 쉬어가는 페이지, 끝부분에서 다루고 있어 비교적 쉽게 책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에 맞추어 풀어 쓰다 보니 우리말의 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주제와 교훈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목은 자유로운 해석과 생각의 확장성을 제한할 수 있어 아쉽다.
<p>김이정 지음 주니어김영사 2012</p>	주니어김영사의 한국고전문학읽기 시리즈 중 하나이다. 마치 한편의 창작 동화를 읽듯 말을 풀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 그러나 원래 제목인 사씨남정기보다 시리즈명이 더 부각되어 있고 원작자가 책표지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쉽다.
<p>김만중 지음 보리 2007</p>	보리의 거레고전문학선집 시리즈 중 하나로 초등학생이 읽기에는 분량이 많아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초등학생용으로 출판된 사씨남정기처럼 그리 어렵지 않으며 다른 책에는 없는 정경부인 윤씨 행장 및 사씨남정기 원문이 실려있어 원문을 읽어보는 재미가 있다.
<p>김만중 (1637-1692)</p>	조선시대 문신으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썼다는 《구운몽》으로 속속 때 소설문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한글로 쓴 문학이라야 진정한 국문학이라는 국문학관을 피력하였으며, 《서포만필》, 《고시선(古詩選)》 등의 작품이 있다. 유희는 풍성이 여진 사씨의 말을 여느리듯 했는데, 혼인 후 심 여년째 자식이 없자 사씨는 교세를 첩으로 들일 것을 한림에게 청한다. 첩이 된 교씨는 한림의 친구 등청과 짜고 사씨를 내쫓지만, 사씨는 진정으로 가지 않고 유씨 선선에서 지낸다. 목숨까지 위험에 빠지자 사씨는 길을 떠나고, 등청의 계략으로 귀양까지 가게 된 한림과 함께 온 여정 끝에 여러 은인의 도움으로 재회하게 된다. 교씨와 등청이 목숨으로 찾값을 치르는 등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자 사씨는 임씨를 첩으로 들일 것을 권하고, 아들 인아도 다시 찾게 된다.
<p>사씨남정기 줄거리</p>	



외국고전 - 걸리버여행기

걸리버 여행기는 18세기 영국의 정치, 사회적 부패와 타락을 꼬집기 위해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풍자 소설이다. 스위프트가 살았던 18세기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토리당과 진보적인 휘그당이 서로 정권을 장악하려 했던 시기이며, 사회적으로는 해외의 여러 종교와 관습을 소재로 한 기행문이 유행했던 시기였다. 걸리버여행기는 1부 소인들이 사는 릴리프트를 통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2부 거인인 사는 브롤딩낙을 통해서 크게 확대되면 보게 되는 인간의 추함, 3부 날아다니는 섬인 라프다, 발리바르도, 락낙, 글림담드림, 일본등의 나라 기행을 통해 이상주의, 과학의 명성에 대한 경종음, 4부 말들의 나라 휴이닝에서는 동물적인 인간의 모습인 야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초기에는 민간 내용 때문에 일부 삭제, 편집되어 출간되기도 하였다.

출판사별 걸리버여행기	출판사별 책의 특징
<p>걸리버여행기 문학수첩 2006</p>	걸리버여행기 완역본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출판사는 문학수첩, 보물창고, 문예출판사 책이다. 어린이용 책은 사건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반면 완역본은 그 나라의 문화, 모습 등에 대한 설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물창고 책은 삽화가 없어 다소 지루한 면이 있고 문예출판사 책은 셋 중 번역이 가장 자연스러워 술술 읽히는 편이다. 세권다 완역본이라고는 하나 번역자의 따라 걸리버가 여행한 나라 이름이나 숫자 등이 서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다.
<p>광명희 옮김 지경사 2006</p>	지경사의 '눈물대비' 세계명작 시리즈의 63번째 이야기. '걸리버의 4가지 모험' 이야기가 모두 실려 있다. 완역본의 내용 중 어린이가 읽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빼고 대부분 충실하게 다뤄 이야기에 속도감이 느껴진다. 책의 말미에 '논술과 마주보기', '논술과 친구하기'를 넣어 책에 대한 내용 이해를 돕고 더 깊이 생각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p>장지연 옮김 대교출판 2006</p>	대교출판 눈높이 클래스는 완역본에 가깝다. 그러나 원래 동화가 아닌 원작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완역본의 지루한 부분을 빼고 이해하기 쉬운 낱말로 해석한 느낌이 느껴진다. 마치 미술전을 보는 듯한 삽화는 선명한 컬러로 차치 지루해 질 수 있는 장편소설에서 그림을 보는 재미도 준다.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권하기 좋은 책이다.
<p>문성원 옮김 시공주니어 2006</p>	독일의 대표적인 어린이 책 작가인 에리히 캐스트너가 다시 구성하여 옛이 야기처럼 쓴 책. 원전에 나와 있는 걸리버 여러 모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험 2가지, 난쟁이 나라와 거인의 나라 이야기를 캐스트너 특유의 임팩트와 어투로 재미있게 들려주고 있다. 원전과 달리 많은 부분이 축약되어 있고 스토리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어 쉽게 술술 읽히는 장점이 있다.
<p>송년식 옮김 호리원 2006</p>	소인국, 거인국, 하늘을 나는 섬나라, 말의 나라 등 총 4권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역문이의 맞춤형 최대한 함부로 원작을 재구성하지 않고 학생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썼는데, 구성이 매끄럽지 않거나 중복된 내용은 고쳐 전체적으로 문장이 잘 흘러가도록 하였다. 4학년 이상이면 이해에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을 듯하다.
<p>조나단 스위프트 (1667-1745)</p>	아일랜드의 소설가·정치자. 아일랜드 혁명의 손에서 자랐으며, 더블린의 트리니티 학원을 졸업했다. 영국 런던으로 나와 어머니 쪽 안 천학인 당시 정치계의 거물 W. 템플 경 밑에서 비서 생활을 했다. 여기서 고전과 역사를 배웠으며, 여러 정치가와 접촉하며 차츰 정계에 야심을 품었다. 한편 아일랜드로 돌아와 목사기도 하였으나 다시 템플 집안의 사장이 되었으며, 1800년대부터 시와 문장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1704년 1권으로 출간된 풍자소설 《책들의 싸움》(1704)과 《홍 이야기》(1704)는 그의 초기 대표작이다. 《걸리버 여행기》(1726)로 아일랜드문학사는 물론 영문학에서도 명작 또는 기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1745년 10월 19일 더블린에서 사망하였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p>걸리버여행기 줄거리</p>	18세기 영국 의사였던 걸리버가 16년 7개월 동안 겪었던 기상천외한 모험을 그린 여행기이다. 키가 10센티미터도 되지 않는 작은 사람들과 사는 나라 릴리프트, 키가 20미터에 가까운 큰 사람들과 사는 나라 브롤딩낙, 하늘을 나는 섬 라프다와 죽은 이들을 불러낼 수 있는 사람들과 사는 섬 글림담드림, '취남'이라는 말 중독이 '아주'라 불리는 인간 종족을 다스리는 취남 나라 등 지금까지 어떤 인간의 발걸음도 닿지 않았던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북돋크북은 서울초등학교 사서교사 8명의 연구모임입니다.(신임회원 : 송파초 김혜영 선생님)

★책의 표지 그림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다음 호는 9월에 발간됩니다.